

고려여행사 (K. T. I.)

○ 대한항공 대리점
○ 모국방문 특별요금 (213) 385-0367
○ 초청 및 제반 여행수속 대행 (7시 후) 465-9279

3554 W. 8th ST. L. A. CA. 90005

미국소식

발행 / 한국일보 나성지사 [일 간]



보험은 추부원

신생활 저축 생명 보험
※누구나 단체보험
가입할선(BLUE SHIELD)

380-1351 388-4781
2801 W. 6th ST. (6가와 HOOVER ST.)

MILLION DOLLAR ROUND TABLE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잡음없이 슬선 수범하는 마음의 자세도

남가주한인사회는 잘·양면에 걸쳐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인사회발전의 모체가 되고 구심점을 이루어야 할 남가주한인회의 발전 육성의 필요성 또한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남가주한인회는 여러가지면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지난 27일 총회에 나타난 교포들의 관심은 이러한 빛나는 업적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다. 이번총회가 있기전에도 이사 선거에 있어 배수공천의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는 일반교포들의 여론을 반영한바 있는 본보는 이번에도 각계인사들에게 한인사회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설문을 제시, 교포사외 밀박대에 걸린 민의의 소재를 알아 보았다. 이에대한 의견은 거의가 한인회회에 대해 일반이 적극 참여할수있는 분위기 조성과정해진 법의 건전한 운영 그리고 새 이사진에 대한 격려등으로 집약됐다. 설문과 회답은 다음과 같다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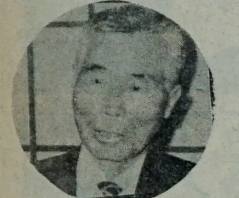
한인회정총에 대한 '앙케이트'

설문

- 1) 9년의 새이사회에게바라는 것은.
- 2) 급변도 한인회 총회때 참가원인이 격감된 원인은
- 3) 현행 한인회 회칙개정의 필요성은.
- 4) 회장단 선출의 선거방법은.

이사직은감투아니다

△송철씨 (전한인회이사장)
(1) 전세교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한다.



(송 철 씨)

과거처럼 이사직을 무슨갑투로 생각하는 풍조는 말끔히 씻겨야 한다.
(2)년부터 '안나간 주제에 할말이었다. 그러나 5만교포의 10 분지 1 정도는 나와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3)4)회칙이나 선거방법은 어고치기보다 운영의모토를 기해야 한다.

어떻게키운한인회냐

△백인명씨 (노인회 부회장)
(1)나같은 사람이 이제무



(백 인 명 씨)

는 아량과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배수공천이 안돼서 무부담 당선이라는 전제를 다시 밝히 말아야 할것이다.
(2)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해마다 참가원인이 증가해 약할 처지에 지난해의 반도 안나왔더니 말이 되느냐.
(3)조금 수정해야할점이 있지만 '생각한다. 추천방식

민주주의 색채 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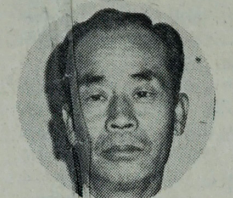
△박리근씨 (대한민국인회 회장)
(1) 5만교포를 포용할수있



(박 리 근 씨)

는 아량과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배수공천이 안돼서 무부담 당선이라는 전제를 다시 밝히 말아야 할것이다.
(2)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해마다 참가원인이 증가해 약할 처지에 지난해의 반도 안나왔더니 말이 되느냐.
(3)조금 수정해야할점이 있지만 '생각한다. 추천방식

해주길 간구할뿐이다.
(2)한[인]의 한사람으로 심히 마음아픈 소식이다. 이러한 것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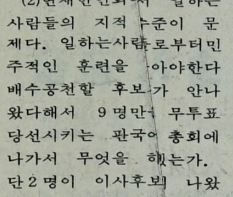
(최 영 환 씨)

(3)4)이런것들은 다 부차적 인문제다. 전체교포를 한데 모으수있는 단색반석이 없는 처지에 선거법이 어떻고 선거방이 좋고 나쁘고 가 문제가 아니다.

이사들지켜수준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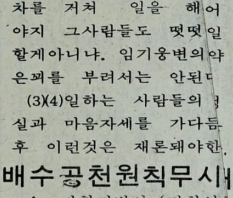
△노준희씨 (청소년 후원회 회장)

(1)매년 속연자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좀 나가지겠지하는 기대를 걸어보곤 했지만 별로 나아진게 없었다. 일하는것을 좀 두고 봐야겠다.
(2)현재한인회에 일하는 사람들의 지적수준이 문제다. 일하는사람로부터만 주적인 훈련을 해야한다 배수공천할 후보가 안나왔다는데 9명만 무부담 당선시키는 판국에 총회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 단 2명이 이사후의 나갔는데도 총회에서 법한결



(노 준 희 씨)

차를 거쳐 일을 해야지 그사람들도 몇몇일 할게 아니냐. 임기중변의 약은과를 부러서는 안된다
(3)4)일하는 사람들의 진실과 마음자세를 가다듬 후 이런것은 재분해야한다.
배수공천원칙무시
△진행기씨 (전한인회 이사장)
(1)슬선수범하는 마음자세 부터 갖추어야한다. 회칙을



(프 랑 크 · 징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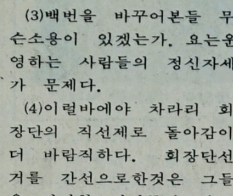
준수하고 파벌을 지양, 단인이 참여할수있는 풍토조성을 해주었으면한다.

(4)선거제도는 반드시 1인 1표직선제로 고쳐져야 한다.
개인이 인격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더기로 투표해서야 되겠는가.
건설적인 사업편야
△이제영씨 (과학기술경영인협회 회장) —(1)2X3X4)이사로 당선된분들은 한인회를 위한 도서를 건설하는문제 등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에 노력했으면 한다 선거방법이야 어떻든 건



(이 제 영 씨)

에 능력있고 성의있는 인사가 참여토록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지도적 입장에서 있는 분들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인 가된 지금 총래 5달러의 비례는 페지하고 1달러정도로 낮춰 한인이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요망된다.
회칙개정과직선제방안은 좀 더시간을 두고 운영의모'를 기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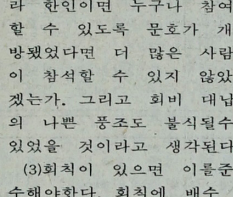
(이 제 영 씨)

에 능력있고 성의있는 인사가 참여토록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지도적 입장에서 있는 분들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인 가된 지금 총래 5달러의 비례는 페지하고 1달러정도로 낮춰 한인이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요망된다.
회칙개정과직선제방안은 좀 더시간을 두고 운영의모'를 기했으면 한다.

그림형성의폐단노출

△프랑크·장씨 (한인유류업자연합회 회장) —(1)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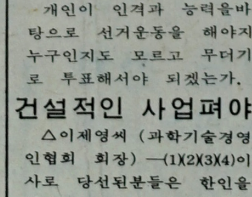
당선된 이사들은 한인회 운영의 지침을 만들고 회장단은 이를 신철해 나가면 좋겠다.
(2)이제까지 한인회이사선거에서 50명 연선에 의한 임부제도 그림형성의폐단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회비 5달러를 낸 사람만이 투표할 것이 아니라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회비 대납의 나쁜 풍조도 분식될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회칙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한다. 회칙에 배수공천규정이 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무시한 데 물의가 있었다.



(프 랑 크 · 징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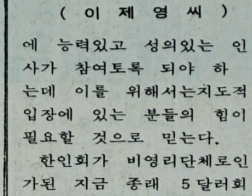
로메로스사건트는 "고 성씨가 주유소 장비실 문을 열어 놔놓는지도 모르겠으나 사건은 성씨가 완전히 문을 닫기 15-20분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성우경씨는 중립원 신분으로 포함해 몇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제 영 씨)

고 성우경씨는 중립원 신분으로 포함해 몇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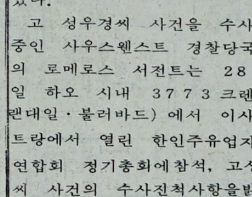
(이 제 영 씨)

고 성우경씨는 중립원 신분으로 포함해 몇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각성해야됩니다

△최영용목사이사로

미약남용방지기구
아미약남용방지기구(AA DAP)는 지난 24일하오 2시 동분부 (1320 노스·그서블러바드주 루디스 레스 회를 열고 헌정이사8명외에 7명을 보장, 도합 15명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한 7명의 이사중에는 최영용목사(한인연합교회)가 피선돼 한인사외 대표로는 종전 이사인 권영배목사와 함께 2



(최 영 용 목 사 이 사 로)

미약남용방지기구(AA DAP)는 지난 24일하오 2시 동분부 (1320 노스·그서블러바드주 루디스 레스 회를 열고 헌정이사8명외에 7명을 보장, 도합 15명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한 7명의 이사중에는 최영용목사(한인연합교회)가 피선돼 한인사외 대표로는 종전 이사인 권영배목사와 함께 2

기자의소리

근본원인 규명돼야
○남가주한인회 사삼유 폐없이 적은 교포가 참석했던 74년도 한인회정기 총회는 개운치않은 여론을 남긴채 폐회되었다. 총회개 회시간 3시정각이 되었는데도 입장한 사람은 2백 명을 넘지못했으니 그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것인지 그원인은 규명돼야 했다.

2백명참석은 지나쳐
○"지난 1년동안 한인회는 남미미연연 소지자의 에로사함을 해결했고 —속원이던 비영리단체등록을 완료했으며 대외기관의 대화의토를 마련했다 (장성길사무국장이 전년도 사업보고)는 화려했던 업적을 남긴 한인회총회에전 제 정회원수의 27% 밖에 안되는 2백 26명의 정회원만이 참석했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나는것이 이날 총회장 안락의 일처럼 견해이다.

자동당선선포로슬렁

○이번 총회의 큰인수는 역시 9명의 이사선거 "여러가지 고심도 해왔으나 다만 지난 1월 25일 제 2 차이사후보등록마감까지 소정의 수속을마친 9명의 이사후보를 임기 3년의 한인 회이사로 자동당선 되었음을 정식 선포합니다." (최 상우 선거관리위원장)라는 발표가 있자 장내는 한때 슬렁대기도 했다.

회의진행규칙 몰라

○이날 총회가 막바지에 이른 하오 5시에 김종 식회장으로부터 기자사항에 대한 사회권을 맡은 이 덕수부회장은 회의진행규칙을 몰라 모르는지 어 거 비웠는데 그것은 문성숙장사의 폐회동 의에 앞서 제출된 질문사항에대한 처리여부도 결정없이 폐회동의만을문고 사회권을 처 폐회시켰던 것이다.

알리 프레이저놀러

전원일치의판정승
무하마드·알리 (32)는전 프트권투 헤비급 세계챔피언 조·프레이저전수 (30)를맞 아 28 일판정승으로몰리침으로 3년전 프레이저전수에 게 패한 실욕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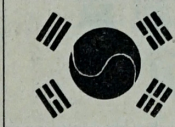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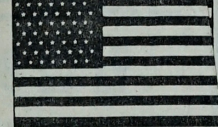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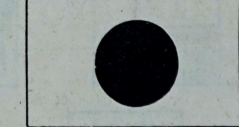
서치라이트

○한인회의 정기총회를보고 고난 각계각층은 진실로 한인사회의 앞날을위한 고견을 들려 줬다.
○한인회 역원체헌에서는 이 총회를 어이 하신편니까.

각성해야됩니다

○한인회 역원체헌에서는 이 총회를 어이 하신편니까.



 KOREA
  UNITED STATES
  MEXICO
  HAWAII
  CHINA
  JAPAN

제1회 세계태권도 챔피언쉽

세계 각종 무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 고유무술의 묘기를 겨름과 함께 각 무술인들의 기술연마가 겨루어 집니다. 특히 이 기회에 한국태권도의 우월성은 더욱 뚜렷이 빛날것이며 세계무대를 향한 단합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정준

•시 일: 1974년 2월 10일(일)
 •ELIMINATIONS: 9 AM
 •FINALS: 7 PM
 •장 소: EL MONTE HIGH SCHOOL GYM.
 3048 N. TYLER EL MONTE, CA.
 연락처: (213) 285-1551, (714) 897-2234

※각종 무술 고단자 특별시범

•TAE KWONDO • KUNG FU • KARATE
 • JUDO • HAP KIDO • KEM PO • OKINAWAN KARATE

재미 체육회 } 공동주최
 서부지역 태권도협회 } 로즈밀 태권도장 정준 주관